



주간통일정세 2008-20(2008.05.19~05.25)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2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시찰(5/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2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부대의 임무수행 실태를 파악한 뒤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했으며, 특히 “부대의 모든 운전수들이 자동차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전기술을 부단히 높여 무사고 주행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그러나 김 위원장 시찰의 동행인사에 대해서는 미언급

● 김정일, 군인가족 예술공연 관람(5/1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2기 제1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인민군 제963부대, 966부대, 233부대의 군인가족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은 예술을 대중화하고 군인가족들의 혁명화를 다그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군인가족들은 남편들의 혁명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기특한 여성들”이라고 언급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

나. 정치 관련

● 北, 통일교육지침서 철회 요구(5/23, 조평통 서기국 보도)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통일교육기본계획과 통일교육지침서에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해 악랄하게 헐뜯고 부정해 나섰다”면서 “심지어 ‘비핵·개방·3000’을 운운하며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까지 중상 모독했다”고 주장
- 조평통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보아도 어느 일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공존, 공영, 공리를 이룩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대해 헐뜯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면서 ‘편향된 교육지침 교정’을 떠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 대결광증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고 비난



- 조평통은 현 정부를 거론하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한 통일교육사업 까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해 나섬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방해 자로서의 정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았다”며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훼손하며 대결을 강요하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단호히 결산할 것”이라고 주장
- 통일부는 ‘분열부’ 맹비난(5/24,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평양방송)
 - 우리민족끼리는 24일 통일부가 북한의 실상과 안보 현실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한 것을 ‘반북대결음모’로 비난하면서 “이번 지침서는 통일부가 아닌 분열부만이 내놓을 수 있는 반공반북지침서”라고 주장
 - 이 사이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앞에서는 ‘진심을 터놓고 만나기를 바란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통일번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뒤에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어찌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폼수)를 다 쓰다 못해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소년들에게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반북대결을 강요해나서고 있다”고 주장
 - 평양방송은 24일 통일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업무과제로 북한인권개선을 꼽은 것을 강하게 비난
- 北, 日 독도영유권 책동 ‘李대통령 탓’(5/23, 조국전선 대변인 담화)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23일 일본이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전해진 것과 관련, “일본 반동들이 독도영유권 교육을 강화하려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떠들며 굴욕적인 친일사대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명박 매국 패당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비난
 -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23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반동들의 공개적인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책동을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침해”로 규탄하고 “독도는 어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고 강조하고 특히 “오늘 일본 반동들의 무분별한 영토 팽창의 수레바퀴에 기름을 쳐주는 것은 이명박 패당”이라며 “과거를 묻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백년 숙적인 일본에 아부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고 있”다고 주장
- 美 사상문화 침투에 모기장 대처 주문(5/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미국의 대외전략 3대 기둥 중의 하나가 사상문화적 침투”라며 이에 대비해 “모기장을 단단히 쳐야 한다”고 주장, 특히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악용해 제국주의자들은 문화교류와 인류의 문명발전이라는 귀 맛 좋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며 “불순 출판선전물들이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든 공간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모기장을 단단히 쳐야 한



다”고 강조

● 北, 6·25때 학살 유해 80여구 발굴(5/22, 조선중앙통신)

- 평남 성천군 석창리에서 6.25전쟁 당시 “학살”된 유해 80여구가 발굴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통신은 6.25전쟁 당시 미군이 “성천군에서 40여일동안 무려 1천700여명의 무고한 인민을 학살했으며 석창리에서만도 150여명의 애국자와 주민들을 살육했다”고 보도

다. 경제 관련

● 김책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5/25, 연합뉴스)

- 중국에 있는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25일 “김책제철소가 중국에서 원조로 들여오던 코크스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최근 고로 가동을 보름 이상 중단한 상태”라고 언급, 북한에서는 코크스탄이 생산되지 않아 제철소 가동에 필요한 코크스탄의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이중 상당량은 중국에서 원조물자로 제공
- 중국 정부는 올해초 북한에 원조물자로 코크스탄 6만t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 4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남·북·중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 코크스탄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에 원조할 코크스탄 구매대행을 위탁받은 지린(吉林)성의 한 회사가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크스탄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당장 코크스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고로 재가동을 위해서는 1만t의 코크스탄 비축이 필요한데다 고로예열 등 준비기간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제철소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른 철강 파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 경제연구, 원가절감 강조(경제연구, 2008년 1호)

- ‘경제연구’ 최근호(2008년 1호)는 국제적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내 원자재가 부족한 실정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원가절감이 절실하다고 강조, 잡지는 ‘원단위(原單位) 소비기준을 낮추는 것은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 제하의 글을 통해 노동력과 원자재, 자금 등을 최대한 적게 투자하면서 품질은 향상시킬 것을 촉구, 그러나 “원단위 소비기준을 낮춘다는 것이 결코 단위 제품이나 단위 작업이 요구하는 질적 속성을 무시하면서 지출요소들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임.
- * 북한에서 ‘원단위 소비기준’이란 “단위 제품을 생산하거나 단위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 설비와 자금 등의 이용 및 소비 한계를 규정한 국가적 기준”을 뜻함.



- **北, '선군봉화상' 쟁취운동으로 생산경쟁(5/21, 조선신보; 5/2, 노동신문)**
 - 북한이 정권수립 60돌(9.9)인 올해 집단주의 경쟁의 한 형태인 '선군 봉화상' 쟁취 운동을 통해 생산과 건설을 독려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 조선신보는 “지금 전국(북한)의 모든 생산단위에서는 집단적 혁신운동인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에 떨쳐나서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신문 5월 2일자 1면 기사를 인용, 선군봉화상 쟁취 운동이 각지 공장과 기업소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선군봉화상 쟁취 운동이 2000년부터 시작됐다”며 “선군봉화상 쟁취 운동은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가 제시한 생산계획 수행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주관 아래 1년 내내 계속되는 이 운동은 ▲국가계획의 달성 ▲과학기술 중시정책 구현과 성과 ▲생산공정 개선(개선).현대화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운동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집단주의”라고 언급, 또 과거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모범단위'로 선정되면 “사회주의 경쟁 공동순회 우승기”를 받고 모범사례는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소개
 - * 과거 김일성 주석의 통치시대에는 '천리마운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 시대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집단적 생산경쟁의 핵심이었다면, 김 위원장 체제의 상징인 '선군정치'의 시대에서는 '선군'의 이름하에 선군봉화상이 강조됨.

- **北, 유럽 기업과 교류 중시(5/19, 조선신보)**

- 북한은 기술 수준이 높은 유럽 각국의 기업과 교류를 중시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9일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5.12~15) 소식과 함께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이 유럽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선(개선)을 밀고 나간다는 (북한의)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전람회 주최측인 조선국제전람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근 유럽의 기업들이 조선(북)과 경제교류 협력에 보다 큰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

라. 군사 관련

-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해체 주장(5/2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4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제2의 조선전쟁 준비를 위한 침략적 전쟁모의기구”라고 비난하며 이의 즉각 해체를 주장
- 신문은 “현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은 침략적인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해체할 대신 오히려 미국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운운하며 미국



의 세계지배전략과 반공화국 전쟁정책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중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과거시대로 다시금 치닫고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은 더욱 짙어가고 있다”고 강조

● **한미 실사격훈련 비난 (5/23,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한미 연합 공중 및 지상 실사격 훈련’에 대해 “우리 민족의 화해 분위기와 평화를 파괴하고 조선반도에 기어코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전쟁도발 행위”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이러한 무모한 전쟁도발 책동은 그들이 떠드는 미국과 그 무슨 ‘동맹’ 강화란 한마디로 미국과 야합해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전쟁동맹’ 강화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며 “남조선 인민들은...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경비정 2척, 6일 서해 NLL침범(5/22, 연합)**

- 북한 경비정이 2008년 들어 세 차례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짐. 22일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5월 17일 오전 6시37분부터 25분 가량 서해 대청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3.2km 침범
- 앞서 6일 오전 11시4분께도 북한 경비정 2척이 대청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1.9km 가량 넘어 16분 가량 기동했고, 3월 28일 밤 10시 50분께는 경비정 1척이 NLL을 300m 가량 월선한 뒤 9분 가량 운항하다가 북쪽으로 되돌아 감.
- * 북한 경비정은 2007년 NLL을 8회 침범

마. 사회·문화 관련

● **문학예술출판사, 5대 혁명가극 노래집 발간(5/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문학예술출판사가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등 “5대 혁명가극”에 나오는 200곡의 노래를 엮어 ‘5대 혁명가극 노래집’을 펴냈다고 23일 소개

● **국제 스포츠대회 메달 ‘풍성’(5/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 선수들이 최근 3개월 간 각종 국제대회에서 40여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20명은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땀다면서 종목별 성적을 자세히 소개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여자 마라토너 김금옥 선수와 정영옥 선수는 지난 2월 중국 홍콩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 또 여자 빙상의 고현숙 선수는 ‘노르웨



- 이컵' 국제빙상대회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500m와 1천m에서 우승, 이어 3월 제주에서 열린 2008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3.18~23)에서 양춘성 선수가 자유형 66kg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차광수 선수는 그레코로만형 55kg급 은메달을, 김순남 선수와 김금철 선수는 자유형 55kg급과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
- 조선중앙통신은 4월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가 5개의 금, 은, 동메달로 단체종합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보도, 또 올해부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공인을 받았다는 평양 '만경대상' 마라톤대회(4.6)에서 북한 선수들이 2개의 금메달과 각 1개의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
 - 북한 선수단은 4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와 태국 방콕에서 개막된 제3차 국제무도경기대회에서도 30개에 가까운 금메달을 땀으며,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 체조경기대회에서는 리세광 선수와 홍은정 선수가 나란히 남녀 도마에서 금메달을 차지, 마지막으로 중국 텐진(天津)에서 열린 2008 '세계컵(월드컵)' 체조경기대회의 남자 도마와 링운동에서는 리세광 선수가 1위와 2위를 쟁취했고 김진혁 선수는 남자 평행봉과 링운동에서 3위에 오름.

● **약초재배에 의료일꾼 총동원(5/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림원준(58) 북한 보건성 국장의 말을 인용, “평양의학대학 병원과 김만유 병원 등 중앙병원들과 각 도 인민병원으로부터 리·동 종합진료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치료예방 기관의 일꾼들이 약초 재배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일례로 평양시 서성구역 인민병원의 경우 “지난 4월 수천 정보에 달하는 약초밭을 새로 조성해 당귀, 목화, 시호 등 약재들의 씨 뿌리기와 모 옮겨심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수유, 감초, 산사, 두충, 구기자 등 “20여 가지의 약초를 심어 정성들여 가꾸고 있다”고 보도

● **北, 이산가족 사연 잇따라 보도(5/22, 평양방송; 5/12, 통일신보)**

- 평양방송은 22일 “고향을 남조선(남한)에 두고 황해남도 재령군 읍 128 인민반에 살고 있는 김덕수 동무와 그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다”면서 김씨 가족이 남북으로 헤어진 사연을 소개, 통일신보도 5월 17일에 경상남도 사천면 정의리에서 태어나 6.25전쟁 당시 북한 의용군에 입대해 월북했다는 황옥금씨의 사연을 보도

● **北, 정권 60돌 기념 집단체조 창작(5/22,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 60돌을 맞아 새로 만든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어’는 북한의 지난 60년을 모두 5장 12절로 나누어 있으며, 이 집단체조에는 공장·기업소 근로자와 각급 학교 학생, 유치원생 등 수만명이 출연한다고 조선신보가 22일 소개



(5.10)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작가동맹의 소설문학분과위원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정권수립 60돌(9.9)을 맞는 올해 신년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내걸고 주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함에 따라 소설가들도 “협동벌에 달려 나가 취재와 현실체험, 집필을 혁명적으로 하도록” 조치했다고 보도
- 조선문학은 지난 1월호에서 작가들에게 올해 문학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격동적인 현실 속에 몸을 폭 잠그고 땅냄새, 기름냄새가 폭 배이도록” 해야 한다며 농촌이나 공장 등에서 “현실 체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北, 어린이 철분부족 빈혈대책 토론회(5/19, 조선신보)**

-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5월 15일 평양에서 ‘제1차 전국 영양관리학 부문 과학토론회’가 열렸다고 조선신보가 19일 보도

● **北, 역사유적 주변시설 대대적 보수(5/19, 평양방송)**

- 북한의 문화보존지도국이 올해 봄철 ‘문화유적 애호 월간’을 맞아 북한 전역의 1천400여개 역사 유적 시설을 보수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北 여성지, 고부간 화목이 가정의 평화(2008년 4월호, 조선여성)**

- 조선여성은 ‘사회주의 도덕과 생활’이라는 코너에서 ‘가정의 화목은 전적으로 우리 며느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 사는 50대의 며느리 최복실씨와 ‘며느리를 귀중히 여기면 행복이 꽃피 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황해남도 송화군에 사는 시어머니 류효애(83)씨의 사례를 소개, 귀감으로 본받을 것을 권장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 이르면 내주 핵신고서 제출(5/24, 연합)**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다음 주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이르면 내주께 핵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 톰 케이지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 힐 차관보가 중국과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출국해 베이징을 27~29일까지, 모스크바를 29~31일까지 각각 방문한다고 밝힘. 특히 국무부는 이번 방문동안 힐 차관보가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힐-김계관 北京서 日人 납치문제 협의(5/25, 연합)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오는 27~29일 중국 방문 기간에 북한 측 파트너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핵 신고 협의의 마무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일 간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관심과 우려사항’을 김계관 부상에게 전달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추정

● 北, 美와 방위조약 체결 희망(5/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미국과 안보체제 확립을 위해 ‘북·미 방위조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북한을 방문했던 토니 남궁 뉴멕시코 주지사 수석고문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북간 ‘방위조약’(defense treaty)을 맺을 것을 원했다”며 “이 조약이 ‘불가침 조약’을 의미하는지, 미국이 북한을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문서화 해달라는 것인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종합적인 동맹조약을 원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구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힘. 그러나 “확실한 점은 북한이 미국과 일종의 안보체제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관심있는 것은 식량, 에너지 지원, 경제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미·북 관계정상화가 아니고 이 모든 문제들은 북한이 미국과 안보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 北, 美의 식량지원에 정치적 의미 적극 부여(5/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미국의 식량제공 신속 보도, 인민의 이목을 끈 정치술어 ‘신뢰증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언론매체들이 지난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 발표를 신속히 보도하면서 ‘이해와 신뢰증진’이라는 구절을 적대관계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사용한 것은 “국면전환을 충분히 예감케 하는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23일 전망
- 신문은 “본지 평양지국에서 전해온 데 의하면, 신문, 텔레비를 통해 보도를 접한 인민들의 이목도 이 구절에 집중됐다고 한다”며 “인민들은 대미관계와 관련한 신문, 방송의 보도를 나라의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는데 “이번 보도를 보고 많은 인민들이 조(북)미관계가 ‘잘되어 나갈 것 같다’는 소감을 말하곤 하였다고 한다”고 전언, 북한 주민들의 이런 소감은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도의 구절구절에서 받은 인상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무책임한 짐작은 결코 아니다”라고 신문은 말하고 미국의 발표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적극적인 의의 부여는 6자회담 이행과 미국과의 적대관



계 해소에 대한 조선(북한)의 입장이 확고부동하다는” 증명이라고 언급

- 조선신보는 북한 매체들이 그동안 “미국이 ‘원조’를 운운하는 데는 음흉한 지배주의적 속심이 깔려 있다”(노동신문, 2007.4.11)거나 “(미국은) 식량문제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면서 우리를 압살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민주조선, 2006.9.20)는 식의 보도태도를 보여온 것과 이번 보도태도를 대비시키기도 함. 신문은 또 북한 매체들이 그동안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 등을 보도할 때는 단순히 그런 사실만 전했다였으나, 이번 미국의 식량지원에 대한 보도에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변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구절”이 있는 게 주목된다고 이례성을 거듭 지적
- 이번 미국의 식량지원 결정을 북한 주민들은 “단순히 식량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조선중앙통신의 (이해와 신뢰증진) 보도가 식량제공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었다”는 것.
- 신문은 이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금 해제 등 “정치적 보상 조치”가 이행될 경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전환이 “행동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조선은 호응할 준비가 다 돼있는 듯 하다”며 “미국이 조선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통한 비핵화의 실현을 계속 추구한다면 10·3 합의 이행의 완결 이후엔 양국관계에 보다 큰 전진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
- 신문은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제재소동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새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한 것으로 하여 민족공조로 정세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10·3합의 이후에는 ‘조미회담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국제정치의 현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덧붙임.

다. 북·중 관계

● 北 지도부, 中대사관 찾아 지진참사 조의(5/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당·군·정 간부들이 20일 주북 중국 대사관을 찾아 쓰촨(四川)성 대지진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조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에 따르면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박의춘 외무상,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장,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장 대리, 박경선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
- 통신은 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내각이 공동 명의로 중국 대사관에 대지진 피해와 관련한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 외무성, 인민보안성, 무역성, 보건성,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에서도 이날 별도로 중국 대사관에 화환을 보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임.



라. 북·일 관계

● 조총련에 對日 투쟁 촉구(5/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결성 53주년을 맞아 일본 당국의 “탄압”을 비난하고 조총련 조직이 “단결과 투쟁”으로 이에 맞서 나갈 것을 촉구
- 노동신문은 “최근 연간 일본 반동들은 총련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모략사건들을 연이어 꾸며내면서 총련 말살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며 “일본 반동들이 제아무리 재일동포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총련을 말살하기 위해 발악해도 주체조선(북한)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꿋꿋이 살며 싸워 나가려는 재일 동포들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조총련과 같은 해외 교포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크나큰 자랑이고 영예”라고 덧붙임.

● 北시인, 日 독도영유권 비판 풍자시 발표(5/25,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北, 日 ‘독도영유권’ 주장 비난(5/23,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일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이며 조선반도(한반도)를 노린 노골적인 재침 선언”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일본이 “새 세대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토록 발광하는 것은 단순히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화’하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통해 독도를 강탈하고 나아가 조선반도와 아시아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신대동아공영권’ 야망을 실천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는 위험신호”라고 주장,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명박 ‘정권’의 친일 굴종적인 대일자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사 재론관련 언급과 일왕 면담 등을 맹비난

마. 기타외교 관계

● 김영남 요르단 국왕에게 독립 62주년 축하 전문 발송(5/2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아프리카와 협조관계 발전 강조(5/24, 연합)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4일 아프리카연합(AU) 및 AU 회원국들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

● 이란 卍방북단 귀국(5/23, 조선중앙방송)

- 아크바르 아베디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이란 하메단주(州) 친선대표단이 23일 방북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英, 對北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연장·확대(5/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영어강사를 파견해 온 영국문화원이 2008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원어민 영어강사 파견 프로그램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제임스 로우 영국문화원 공보관이 밝힘.
 -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로우 공보관은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영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 동안 평양내 대학에서 교수들을 가르칠 영어 강사 4명을 새로 모집하고 있다고 언급
 - 영국문화원은 2002년부터 북한에 영어 강사를 파견했으며, 현재는 3명의 강사가 평양내 주요 3개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등 모두 450여 명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 영어 강사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수들의 영어 실력이 유럽의회 지정 기준 'B1~B2' 정도라고 평가했으며, 이는 중간~중상위 수준임.

- **北·에티오피아 문화교류계획서 체결(5/22,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에티오피아 정부가 '2008~2010년도 문화교류 계획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5월 16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체결식에 리성목 에티오피아 주재 북한 대사와 모하메드 디리르 에티오피아 문화부 장관이 참석해 서명
 - * 북한과 에티오피아는 1975년 수교한 뒤 '20년친선협조조약'(1983), '경제기술협조협정'(1985), '탱크생산재개협정'(2004) 등을 체결

- **주북 英대사 농촌 지원(5/21, 조선중앙통신)**
 - 존 에버라드 주북 영국대사와 대사관원들이 21일 평안남도 평성시 백송협동농장을 찾아 농사를 돕고 지원물자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란 하메단주 대표단 방북(5/19, 조선중앙통신)**
 - 아크바르 아베디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 하메단주 친선대표단이 19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가. 남북교류

- **北, 6·15행사 南당국자 수용 거부(5/23, 연합)**
 -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위원회 대표단은 23일 개성에서 만나 6월 15~16일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채택 8주년 기념 행사를 치르기로 합의
 - 세 대표단은 행사 명칭을 '6·15 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약칭 6·15 민족통일 대회)'로 하고 개·폐막 사이에 6·15공동선언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힐-김계관 北京 회동서 日人 납치문제 협의”(5/25)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오는 27~29일 중국 방문 기간에 북한 측 파트너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핵 신고 협의의 마무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일 간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 현안에 정통한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베이징 북미 회동의 주의제는 북일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관심과 우려사항’을 김계관 부상에게 전달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교 소식통은 “미 상원이 22일 북핵 6자회담 추진에 필요한 예산 6천800만달러를 승인하고 핵실험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글렌 수정안을 북한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북핵 협상의 급속한 진전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북일간 현안 협의도 진행돼야 미국내 여론의 뒷받침이 이뤄지는 국면이 될 것이며, 이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납치문제가 조만간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이르면 내주 핵신고서 제출할 듯(5/24)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다음 주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이르면 내주께 핵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내주가 작년 연말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여부를 결정짓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비롯한 북·미간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 “힐 내주 베이징·모스크바 방문” <미국무부>(5/24)

- 톰 케이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오는 26일 출국해 베이징을 27~29일까지, 모스크바를 29~31일까지 각각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차 예비조사 결과 “아직까지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보도

-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19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이 제출한 문서들은 많은 기술적 자료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VOA는 전하고, 현재로선 북한 핵문서가 ‘진짜 같다’는 잠정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함. 부시 행정부가 문서 분석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금까지 작업 결과를 담은 임시보고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北, 6자회담前 영변핵시설 냉각탑 폭파·해체” <김숙 본부장> (5/21)
 -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시기와 관련, “북한이 5월말을 전후해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핵신고서가 제출되면 각 국이 이를 회담하게 되고 이와 연계해서 미국측의 의무사항인 테러지원국 해제 등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영변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해체하고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전에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한 데 대해 “냉각탑 폭파는 북핵 폐기 단계의 첫 단계로 폐기단계를 서둘러 진행해서 6자회담의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시기와 관련, 김 본부장은 “미국측은 꼭 집어서 언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지 날짜를 지정하지는 못했다”면서 “상황적으로 조만간 북한의 핵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상응적 조치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
 - 대북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 김 본부장은 “북한에 제공기로 한 중유 100만t 가운데 지금까지 31만t이 전달됐으며 아직 69만t이 남았다”면서 “개념적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중유 100만t에 상응하는 중유 또는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힐 “북핵 신고 임박”(5/20)
 - 힐 차관보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담긴 내용과 관련, “(그것은) 패키지로 북핵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북-시리아 핵커넥션 의혹 및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이 어떤 형태로든 포괄적으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음. 그는 5월말까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간 일의 속도를 내려 한다면 “나는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방문해 좀 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3자 대표는 북핵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차기 6자회담 개최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3자든 4자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 “北, 6자회담 의장국 美로 교체에 긍정” <RFA> (5/19)
 - 북한은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을 현재 중국 대신 미국이 맡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방북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 방송은 “앞으로의 핵타결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을 대신해 미국이 6자회담 의장국을 맡는 방안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에 의해 북한에 전달됐고, 이에 북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중국도 의장국 교체에 거부 입장은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 전문가는 전했다”고 말했다.
- 韓美日, 6자회담 등 북핵현안 협의착수(5/19)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수석대표들은 한일 수석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19일에는 미 국무부에서 한미, 미일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오후에는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동을 갖음. 연쇄 회동에서 3국 대표들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북핵 신고문제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검증방안, 6자회담 재개 일정, 북핵 폐기단계인 3단계 이행방안 등에 대해 두루 논의 예정

나. 미·북 관계

- “北, 美의 식량지원에 정치적 의미 적극 부여” <조선신보> (5/23)
 - 북한 언론매체들이 지난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 발표를 신속히 보도하면서 ‘이해와 신뢰증진’이라는 구절을 적대관계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사용한 것은 “국면전환을 충분히 예감케 하는”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전망
 - 조선신보는 “미국의 식량제공 신속 보도, 인민의 이목을 끈 정치술어 ‘신뢰증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하반기 조미관계의 행방을 가늠해 볼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
- 美상원, 대북경제지원예산으로 1천500만달러 책정(5/23)
 - 미 상원이 22일 대북경제지원을 위해 1천500만달러의 경제지원예산을 책정하고 북한의 영변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5천300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음.
 - 미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해 찬성 70표, 반대 26표로 가결 처리했음. 이 법안은 또 북한의 핵불능화 및 핵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핵장치 폭발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예산지원을 금지토록 한 ‘글렌수정법’을 북한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美 정가 북한 문제 ‘파장’ 분위기” <RFA> (5/22)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내달초 6자회담에 참석하고 북한의 핵신고를 받는 것으로 북한 문제에서 손을 뗄 생각이며 자신의 후임으로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천거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 방송은 워싱턴 전문가들이 “북한 문제는 워싱턴에서 사라진 듯하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식량 지원은 부시 임기 중 북핵문제를 일단락 하는 사실상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 “美, 北 조기지원 위해 WFP보유식량 활용 검토” <WFP> (5/21)
 -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미국의 활발한 움직임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첫 인도분의 곡물 구성과 정확한 양 등 “자세한 계획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의 첫 인도분은 5만t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
 - 미 국제개발처(USAID)의 데이비드 스나이더 대변인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모니터링(분배감시) 활동 조건을 담은 의정서에 합의했으며, 이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의 배치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 “北 식량위기 해결책은 핵아닌 경제개방과 산업화” <놀랜드> (5/21)
 -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2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북한 식량위기: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곡물의 총체적인 수급균형을 고려할 때 90년대 중반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현재 식량수급 사정은 유엔의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추산하는 것보다는 열악하지 않지만 초과공급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사태 발생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지적

다. 중·북 관계

- <중국 강진> 평양서도 애도 사이렌...北 최대 조의(5/20)
 -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대지진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것을 위로한데 이어 14일에는 김영일 북한 총리가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중국 대사를 만나 재차 위로를



표시하며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음.

- 북한은 중국 정부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를 대지진 희생자 애도기간으로 선포하자 중국과 마찬가지로 19일 오후 2시28분 평양시내에 사이렌과 차량 경적을 울려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음. 신화통신은 “조선인민도 중국인민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진 희생자를 애도했다”고 북한의 성의를 높이 평가했음.

라. 일·북 관계

● 北신문, 조총련에 對日 투쟁 촉구(5/25)

-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결성 53주년을 맞아 일본 당국의 “탄압”을 비난하고 조총련 조직이 “단결과 투쟁”으로 이에 맞서 나갈 것을 촉구
- 노동신문은 이날 ‘주체적 해외교포 조직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가는 총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연간 일본 반동들은 총련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모략사건들을 연이어 꾸며내면서 총련 말살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며 “일본 반동들이 제 아무리 재일동포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총련을 말살하기 위해 발악해도 주체조선(북한)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곳곳이 살며 싸워나가려는 재일 동포들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

● 北시인, 日독도영유권 비판 풍자시 발표(5/25)

- 일본이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전해진 가운데 북한의 시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 풍자시를 발표
- 25일 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북한의 풍자시인 신흥국씨는 ‘독도 데핵산(DNA) 분석’이라는 풍자산문시를 통해 “애야, 아무리 바다와 함께 산들 부모야 어떻게 바뀌고 혈통이야 어찌 변하겠니. 너처럼 생각한다면 바다에 사는 온 세상 섬들이 다 네 거란 말인데, 너 바다에서 오래 살더니 파도에 너무 머리를 짓궂어 뇌진탕에 걸린 것 아니니”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
- 이번 풍자시는 ‘독도’라는 딸을 가진, 한반도를 상징하는 ‘백호’라는 이름의 호랑이와 일본을 가리키는 ‘흑견’이라는 물개가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음. 신씨는 이 시에서 “흑견이라고 부르는 물개가 떠돌아다니다가 오돌차게(아무지고 단단하게) 생긴 독도를 발견하고 계침(질질 흘리는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면서 “끈질기기로 소문난 흑견이는 오늘까지 계속 쳐다보며 치부렁거린다”고 조롱.

● 北 “日, 강제연행 희생자문제 실천조치 취해야”(5/24)

- 북한의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및 유가족협회’는 24일 일제시기 일



본에 끌려갔다가 희생된 조선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 등 실천조치를 취하라고 촉구

- 이 협회는 이날 발표한 ‘일본 도쿄에 끌려가 미군의 공습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문제와 관련한 조사보고서’에서 “일본 패망 말기에 도쿄에는 10만명 이상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군관련 기업소나 군수공장, 군사시설 공사장에서 참혹한 노예노동을 했다”고 주장

● 北 매체, 日 ‘독도영유권’ 주장 비난(5/23)

- 북한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일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이며 조선반도(한반도)를 노린 노골적인 재침 선언”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일본이 “새 세대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토록 발광하는 것은 단순히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화’하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통해 독도를 강탈하고 나아가 조선반도와 아시아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신대동아공영권’야망을 실천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는 위험신호”라고 주장

마. 기타

● 英, 對北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연장·확대<RFA>(5/23)

- 북한에 영어강사를 파견해 온 영국문화원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원어민 영어강사 파견 프로그램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제임스 로우 영국문화원 공보관이 밝혔다.
-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우 공보관은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영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동안 평양내 대학에서 교수들을 가르칠 영어 강사 4명을 새로 모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和정부 대북 사업단 9월 방북 추진”<RFA>(5/20)

- 네덜란드 정보기술자문회사인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통화에서 당초 자사가 이달에 북한의 정보산업기술에 대한 산업시찰을 할 계획이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공식 사업단을 파견키로 함에 따라 그때 사업단의 일원으로 정보기술 분야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네덜란드 사업단의 구체적인 방북 일정을 북한과 논의 중이고, 북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韓, PSI 5주년 기념행사에 정부 대표 파견(5/23)

- 미국 정부가 다음주 워싱턴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 대표도 일부 행사에 참석할 예정임.
- 미 국무부는 오는 28~29일 이틀간 워싱턴 D.C.의 힐튼워싱턴호텔에서 존 루드 국제안보 및 무기통제 차관대행의 주제로 PSI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음.
- 한국 정부 대표의 이번 행사 참가는 미국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을 의식해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PSI 가입을 요구해왔고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PSI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임.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국은 아직 PSI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 대표는 첫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둘째날 워크숍에만 참가, PSI 참가국들의 경험과 성과 등에 대해 듣게될 것”이라고 말했음.

● 美IT업계, 백악관·의회에 한미FTA 비준촉구 서한(5/22)

- 미국전자협회(AeA), 소프트웨어업연합(BSA) 등 미국 IT(정보기술)·통신·전자제품업계 대표들은 21일 백악관과 의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토록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촉구. 서한에서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모든 관련자들은 견해를 해소, 중요한 협정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美상무차관 “한미FTA 자동차 협정조항 문제없다”(5/21)

- 크리스토퍼 파디야 미 상무부 국제통상담당 차관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동의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한미 FTA 자동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과 미 의회 지도자들을 강력 비난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트레이드’가 20일 보도
- 파디야 차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자동차 조항과 관련, “펠로시 의장도 자신의 견해를 가질 자격이 있지만 펠로시 의장의 견해는 잘못됐다(wrong)”면서 “한미 FTA 자동차 관련 조항에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음.

● 버시바우 “FTA 美의회 비준전망 꽤 밝다”(5/20)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미 의회 통과 전망과 관련, “의회 비준 전망이 꽤 밝다



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이 이뤄낸 가장 중요한 성과중 하나로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면서 “(미 정부는) 미국 국민과 소비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도 미국 농산물에 대해 신뢰를 갖길 바란다”며 미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

● 한·미, 21일부터 WRSA 이양 5차 협상(5/20)

- 한·미는 21~23일 국방부에서 전쟁예비탄약(WRSA) 처리와 관련한 5차 협상을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 국방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약 11개월 동안 실시한 WRSA 성능 종합평가 결과를 미측에 설명하고 한·미 단일 탄약 보급 및 관리를 위한 기존의 합의각서 개정 문제 및 우리측 인 수 물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국 태평양사령부 차원의 전시 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도 의제에 오른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군사핫라인’ 개통 기대감 고조(5/25)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양국 군사핫라인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군의 한 관계자는 25일 “양국이 작년에 합의한 군사 핫라인 개통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지부진해 있는 핫라인 개통 문제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中선양 한국주간 폐막…36억불 외자유치(5/23)

-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중국 선양(瀋陽) 한국주간 행사가 36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남기고 23일 폐막했다. 선양시 인민정부측은 이날 폐막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국주간 행사기간 총 106건의 투자계약(의향서 포함)이 체결돼 총 35억9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평균 외자유치액은 건당 3천386만달러로 이중 1억달러 이상이 5건, 1천만달러 이상이 2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한국의료팀 中 지진현장 파견 무산(5/23)

- 우리 정부가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현장에 의료지원팀을 파견키



로 했던 계획이 중국측의 고사로 무산됐음. 주중 한국대사관은 23일 “우리 정부가 이번 주말께로 계획했던 30명 정도로 구성된 의료지원 팀 파견을 중국 당국과 협의한 결과 더 이상의 해외 의료진은 필요하지 않다는 중국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파견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음.

● **中, 李대통령 27일 중국 국민방문 공식 발표(5/22)**

- 중국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민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만난다”고 밝혔음. 29일 오전 베이징대학에서 연설을 하고 칭다오(靑島)로 이동에 산둥(山東)성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시찰하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
- 이번 이 대통령 중국 방문에는 경제5단체장과 이수빈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 그룹 회장 등 모두 38명의 경제인이 수행

● **李대통령, 중국 대지진 희생자 애도(5/22)**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후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으로 참사를 입은 중국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에 설치된 조문소를 방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음. 이 대통령은 조문록에 “불의의 지진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중국 정부와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빠른 복구를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모아 기원한다”고 적었음.

● **中공무원 한국공무원 보수체계 연수<행안부>(5/21)**

- 중국 인력자원·사회안전부 소속 공무원 5명이 한국 공무원 급여결정 체계를 배우기 위해 22일부터 이틀간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고 21일 행안부가 밝혔음.
- 행안부는 “이번 방문은 2005년 체결된 한·중·일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방문단은 한국 공무원의 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밝혔음.

● **류우익, 중국 대지진 희생자 조문(5/20)**

-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에 설치된 조문소를 방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음. 류 실장은 조문 후 중국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나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헤아릴 수



없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한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위로와 슬픔을 전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중국의 지진피해를 우리 자신의 피해와 아픔처럼 느끼고 있다”고 위로했음.

● **정부, 中쓰촨성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5/20)**

- 정부는 20일 대지진이 발생한 중국 쓰촨성 지역을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음.
-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주중국대사관과 주청투총영사관에 긴급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한인회와 유학생회 등 교민단체와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 당국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음.

● **정부, 중국 지진피해 400만弗 추가 지원(5/20)**

- 정부는 중국의 대지진 피해가 계속 확대되면서 중국 측이 추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400만달러 규모의 물자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음. 이에 따라 이미 집행한 100만달러를 포함해 이번 지진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규모는 총 500만달러에 달함.
-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중국측의 지원 요청을 수용한 것이며 의약품과 천막 등 구호물자 위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일본 역사부도서 독도 조선땅 인정”(5/20)**

-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허종화 명예교수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일제강점기인 1939년 일본의 도쿄학습사(東京學習社)에서 발간한 소학국사회도(小學國史繪圖)를 공개했음.
- 허 명예교수는 “이 책의 본문 40페이지에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해의 해전도가 그려져 있으며 해전도상 대마도 등 일본 본토는 주황색으로, 독도(竹島)와 울릉도는 회청색으로 각각 표시됐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땅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교총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할 것”(5/20)**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일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 뒤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총은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신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를 침탈하는 행위”라며 “50만 교육자를 대표해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權 주일대사, 日외상에 독도 관련 입장 전달(5/19)**

-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는 19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교과서에 명시키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을 만나 한국 정부의 엄중 대응 입장을 전달
- 주일 한국대사관측에 따르면, 권 대사는 이날 자신의 신임장 제정식에 배석한 고무라 외상에게 별도의 면담을 요청,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

● **日 문부성, 독도영유권 해설서 포함여부 ‘검토중’(5/19)**

- 제니야 마사미(錢谷眞美) 일본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19일 중학교 사회교과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명기할지 여부와 관련, “(해설서에) 쓸지 안쓸지를 포함해 검토중으로, 명확히 말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언급을 피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
- 제니야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학교 모든 지도책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 범위로) 명기돼 여기에 기초해 지도되고 있다. 일본의 영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발간(5/19)**

-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함께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을 출간
- 총 5권으로 나온 해제집은 1950년부터 1965년까지 진행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한일회담)과 관련된 3만5천여쪽의 한국측 외교문서를 사안별, 내용별로 분류해 정리
-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는 2005년 1월 일제강점 피해자들이 문서공개 요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청구권 관련 문서가 1차로 공개됐고, 그 해 8월 관련 문서가 전부 공개됐음. 문서 공개 이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전문가 5명이 3년 동안 연구를 수행했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해부터 해제집 간행을 추진했음. 재단은 ‘한일회담 주요자료집’ 15권을 추가로 발행해 활용할 계획임.

● **柳외교 “독도영유권 훼손기도 엄중 대처할 것”(5/19)**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유 장관은 이번 사태에 ‘엄중 대처’하는 배경에 대해 “우선 교과서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간에 민감하게 대응해왔고 젊은세대 교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교과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과거(지난2월)와 같이 대응하는 것보다 강하게 우리 우려를 일본 정부에게 전달하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 한, 日 ‘독도 교과서 왜곡’ 성토(5/19)

- 한나라당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교과서에 명기한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 강재섭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중학교 사회와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새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

● 정부, ‘日 독도주장’ 엄중 대응(5/19)

- 이명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측에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긴급 지시했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지체없이 언론에 공개했음. 유 장관은 오전 11시 시계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 면담이 끝난 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유 장관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엄중히 표명했고, 유 장관은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영유권 훼손기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는 ‘항의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라. 한·러 관계

● 權 외교차관, 러시아 등 유럽 3개국 방문(5/23)

- 권중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26~31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 권 차관은 27일 러시아 외교차관과 만나 한·러 정상회담, 한·러 전략대화 추진방안 등 양국 간 실질협력방안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29일에는 스웨덴에서 열리는 ‘이라크와의 국제협약’ 점검 회의에 참석, 이라크 재건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임. 권 차관은 30일에는 프랑스 외교차관과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 일정과 외교장각 도서 반환협상을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



● 한-러 정상, 북핵문제 등 협력 다짐(5/20)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취임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문제를 포함해 양국간 관계 발전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15분 동안 가진 전화통화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러시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을 기원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축하 인사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간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향후 러시아 방문을 통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동시베리아 개발 참여 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러 예카테린부르크시 우호도시 MOU(5/20)

- 인천시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시와 우호도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아르카지 체르네츠키 예카테린부르크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안상수 시장을 만나 경제, 통상, 물류, 과학, 문화, 신기술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체르네츠키 시장 일행은 MOU 체결식을 마친 뒤 송도국제도시내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과 인천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등을 둘러봤음.

● 柳외교,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면담(5/20)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세계철도연맹 서울 총회 참석차 이날 방한한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등에 대해 협의.
-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러 관계 발전상을 평가하면서 지난 7일 출범한 러시아 신정부와 협력채널 강화를 희망하는 입장을 전달했음. 특히 대북 중유 제공 등 러시아측이 북핵 문제 해결에 건설적으로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중인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확대를 희망했음.
- 이에 대해 야쿠닌 사장은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유 장관은 이 사업이 남·북·러 3각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고 한·러간 극동 시베리아 개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 이해를 표시했음.



마. 미·중 관계

● 美, 中에 지진피해지역 위성사진 제공(5/21)

- 최근 발생한 중국 대지진과 관련, 미국 정부가 중국의 피해평가를 돕기 위해 지진이 발생한 쓰촨성 지역에 대한 위성사진을 중국측에 제공키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음.
- 브라이언 위트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댐과 저수지, 도로와 교량 등에 관한 위성사진을 특별히 미국측에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미 공군 소속의 대형수송기인 C-17 2대가 18일 중국에 구호품을 전달했음.

바. 중·러 관계

● 中-러, 손잡고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도전(5/24)

- 지난 7일 취임 이후 첫 외유길에 오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음. 양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날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맞서 러시아가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의 봉쇄전략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했음.
- 양국이 지금까지 군사협력이나 에너지 동맹 분야에서 너무 협력의 수준이 낮았으며 상대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 지원에 나서지 못했다는 점에도 반성했음. 양국 정상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을 비난했음. 이들은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 등지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전략적인 균형과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음. 미국은 폴란드와 체코에 구축할 미사일방어체제는 북한과 이란 등 서방을 위협하는 국가들로부터 서방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사. 기타

● 한·몰디브 외교장관 회담...실질협력 확대합의(5/23)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압둘라 샤히드 몰디브 외교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인적교류와 개발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양국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 샤히드 장관은 1천200여개 도서로 구성된 몰디브는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더 많은 한국인의 방문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유 장관은 관광객 등 몰디브내 한국인 보호를 위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음. 두 장관은 이밖에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SAARC)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인도-파키스탄, 4차 평화회담서 포로문제 등 합의(5/22)**

-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틀간의 4차 평화회담을 통해 포로문제 해결 등에 합의했지만 카슈미르 국경분쟁 등 핵심 안건에 있어서의 진전은 보지 못했다. 이틀간의 평화회담을 마친 양국 외무장관은 2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기자회견을 갖고 포로들에 대한 영사 접근을 허용과 평화회담의 지속적인 개최 등 이번 회담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영토 분쟁지역인 시아첸과 시르 크리크(Sir Creek) 문제를 조속히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연합인터뷰> 아이언 맥도널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장관(5/21)**

- 아이언 맥도널드(Ian Macdonald)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장관이 19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음.
 - 방한 목적은 무엇인가.
 - ▲ 한국과는 지하자원에 있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국은 자원 수요가 많은 나라다. 호주에는 석탄이나 철광석, 아연 등 지하자원이 많다.
 -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 한국과 호주, 특히 뉴사우스웨일즈 주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
 - ▲ 호주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개발을 해야 할 입장이다.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호주는 한국의 기술 개발을 원한다.
 -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개발 정책을 더 상세히 설명해 달라.
 - ▲ 광물이나 지하자원 말고도 한국이 관심을 뒤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쇠고기를 포함한 식품은 무척 안전한 품목이다.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식품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
 - ▲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삼림자원도 풍부하다.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많은 기업들과 지하자원 공동개발이나 수출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과 호주가 가급적 빨리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이다. 한-호 FTA는 양국간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양국 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경제분야의 한-호 관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 ▲ 주지하다시피 호주는 땅은 무척 넓은 대신 사람은 적다. 광산이나 광물 등 자원분야의 양국간 협력 사항이 많다. 양국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성과를 거둘 것이다. 정부끼리의 협력은 물론이고 정부와 민간 분야의 협력 역시 중요하다.



● 인도-파키스탄, 20일 평화회담 재개(5/19)

- 인도와 파키스탄은 20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외무장관 등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에 걸친 평화회담 재개.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총선을 통해 파키스탄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파키스탄 신정부와 인도의 관계 설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
-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무장단체의 월경 문제와 잠무카슈미르 영토 분쟁, 경제 및 관광 분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 인도 측은 최근 자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에 협조를 구할 방침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